

## 철릭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이 은 주

안동대학 가정학과

**An Analysis on Chölik in Social Aspect****Eun Joo Lee**Dept. of Home Economics, Andong National University  
(1989. 6.30 접수)**Abstract**

The present paper mainly concerns, in social aspect of the cultural change, with how *cholik* was introduced and accepted in Koryö dynasty.

It was through cultural transmission in political relations with Wön dynasty that *chö lik* was first listed on our own costume system in later Koryö dynasty. The acceptance by Koryö society can be interpreted as the twofold effects; positively, it enriched our costume system and, negatively, it brought about various conflicts, which in turn caused some unwelcome reactions. Once it had permeated into Koryö culture, it could not avoid being changed by social conditions. The changing process can be defined as the dual cycles of fashion. The first one started at mid period of Koryö when King Chung-ryöl provided a law to wear the Wön costume and, ended at later Koryö of King Kong-min's reign. The second cycle rose in the period between King Sejong's reign and late Chosön. Each of the two cycles appeared to have its own characteristics;

## 1. The first cycle.

1) In spite of the long period of a century, the cycle was very abrupt both in development and decline.

2) The abrupt pattern of the cycle can be attributed to the nation-wide law provided by the ruler.

## 2. The second cycle.

1) Compared with the first cycle, the curve was rather slow.

2) The fashion originated from the hyperimitation of the government officials, since the costume was the royal gift by Chinese Emperor.

3) The main cause of the development of the fashion was the wars, rather than the public preference.

본 연구는 1989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4) The main cause of the decline of the fashion was that it could no more differentiate the social status, that the wearer was laughed at by the Chinese, and that the long period of wearing the same dress stimulated the fashion psychology.

5) The increasing size of the costume rather decreased the very function of the costume.

## I. 서 론

복식을 포함한 문화의 모든 구성요소들은 그 성격 자체가 동태적인 것이어서 시간과 더불어 항상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의 변동은 한 사회 내에서의 자체 생성된 문화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전파라는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특히 다른 사회에서 전파되어 온 문화요소들은 그 문화를 수용할 사회구조의 특성에 맞추어 새로운 문화요소로 도입된다. 또 전파된 문화 역시 수용 당시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사회 내부의 독특한 구조와 환경적 요인들 속에서 다시 새로운 변동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한편, 우리 복식문화 요소 중 철릭<sup>1)</sup>은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 전반(全般)에 걸쳐 여러계층의 용복, 편복, 상복, 중의 등으로 착용되었던 포류(袍類)의 하나로서 상하연철(上下連綴)의 구조에 허리에 주름을 잡는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철릭에 대해서 이미 다각적인 연구가 행해진 바 있으나 문화변동이라고 하는 사회학적 측면에서의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철릭을 통하여 복식문화의 동태적 특성을 사회학적 측면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그 변동과정을 외래문화로서의 전파과정과 전파 후 우리 사회 내에서의 전파과정 즉 하나의 유행과정으로 파악하고 그 변동과정을 성립시킨 사회 심리적 요인, 또 그 과정 상에서 야기된 사회적 현상 등을 문헌자료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복식문화의 변동현상에 대한 한 예를 제시함과 동시에 복식문화의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II. 외래문화로서의 철릭 전파현상 분석

한 사회의 문화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 또는 문화요소들이 시간을 통하여 끊임없이 상호작용해 나가는 과정을 '문화과정(culture process)'이라고 하며 그 문화과정은 항상 변화를 전제로 한다. Davis는 "문화변동

은 사회 조직의 형태와 규칙에 있어 일어나는 변동을 무시하여 문화의 각 부분 즉 예술, 과학, 기술, 철학 등이 일어나는 변화를 포괄하다"고 규정하였다.<sup>2)</sup> 그러한 문화변동의 일반적 원인은 ① 생태학적 환경의 변화 ② 사회학적 변화 ③ 상이한 문화패턴을 가진 두 사회의 접촉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sup>3)</sup>

그 중 상이한 문화패턴을 가진 두 사회의 접촉에 의한 사회의 문화요소들이 다른 사회로 전해지고 그 사회 문화 속에 통합되어 정착하는 현상을 '문화전파(cultural diffusion)'라고 하는데 특히 상이한 두 사회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직접적인 접촉관계를 갖게 됨에 따라 일어나는 문화변동을 '문화접변(acculturation)'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중국과의 접촉에서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났었다. 한 Wissler<sup>4)</sup>는 전파의 형식을 인간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진행되는 '자연적 전파'와 전쟁이나 포교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의도적 전파'로 분류한 바 있다.

철릭이라는 복식은 줄고<sup>5)</sup>에서 시대의 정치적 상황 용복의 개념, 출토복식에 의한 연대 추정, 질손복과 관련성 및 복식명칭의 기원 추적이라는 여러 측면에 밝힌 것 처럼, 고려중기 이후 원(元)에서 전래된 외래식이다. 즉 의도적인 문화의 전파, 또는 문화접변이라는 형식에 의해서 우리의 복식문화에 도입되어 정착된 문화요소 중의 하나인 것이다.

철릭을 도입하게 된 역사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고려 왕조는 13세기에 세계제국을 형성하였던 몽고족과의 오랜 투쟁 끝에 부득이 사대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 후 실질 상호간의 혈연적 관계로 까지 발전하여 소위 부마이라는 위치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상호간의 공식, 비공식적인 문화의 교류가 활발했으리라는 것은 말할 것 없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는 상당량의 문화전파가 자연적 전파가 아닌 의도적인 전파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문화의 흐름은 일반적으로 고수준의 문화에서 저수준의 문화로, 혹은 지배문화에서 피지배문화로 이루어지므로 원과 고려 간의 문화흐름도 그러한 양상을 띄었

으로 생각되나 특별히 원에서 전래된 문화요소가 '몽풍', 고려에서 원으로 전래된 문화요소가 '고려양'으로 적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일방적인 문화의 흐름만이 아니라 상호간의 문화흐름이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Murdock은 문화변동의 과정을 ① 혁신(innovation) 전파(diffusion) ③ 사회적 수용(social acceptance) ④ 통합(integration) ⑤ 선택적 배제(selective mination) ⑥ 사회화(socialization)라는 여섯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sup>6)</sup>

혁신이란 기존 사물이나 질서 등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발명, 발견 및 내적 자극이나 외래문화의 전파와 같은 외적 자극이 행되어야 하며 또 혁신이 존재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를 행할 혁신자가 있어야 한다. 혁신자(innovator)는 사회의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것이 필수명제인데, 들은 혁신의 초기단계에서 전통문화의 입장에서 볼 때 변인(marginal man)으로 존재하게 된다. 또한 혁신자가 어느 계층에 속해 있는나 하는 것이 전파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게 되며, 과거 대부분의 사회가 그러했듯이 리나라의 경우도 엘리트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혁신자 역할을 하였다.<sup>7)</sup>

고려왕조가 몽고의 복속이 결정되자 향원심(向元心)사로잡힌 왕실 이하 귀족계급층은 출신하여 몽고풍을 새로운 풍조가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문화수용에 있어서의 혁신자 계층이 고려왕조의 상류계층이었음을 하는 것이며 앞에서 지적했 듯이 그들의 사회적 지위 문화전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제24대 원종 원년에 원 세조(世祖)가 고려의 관을 개혁하지 말고 종래의 고려복식을 습용하라는 관한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sup>8)</sup> 세자 심(世子 諱)은 종 13년에서 돌아올 때 변발호복(辮髮胡服)을 하여 보이로 하여금 탄식케 했다고 한다.<sup>9)</sup>

고려사의 '변발호복의 차림에 대해 탄식했다'고 하는 기록은 혁신단계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단적으로 지적한 목이다. 즉 구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집단과 신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집단 사이의 갈등이다. 대체적으로 기존의 사회 내지 가치체계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에 많은 갈등이 야기되는데 심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생하기도 한다. 이렇듯 기존질서는 상실되고 미처 새운 질서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혼란상태를 '아노(Anomie)상태'라고 한다.

Merton<sup>10)</sup>은 사회구성원들의 아노미에 대한 적응형태를 ① 동조(conformity) ② 혁신(innovation) ③ 의례주의(ritualism) ④ 도피주의(retreatism) ⑤ 반역(rebellion)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다섯 유형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에 대한 일정한 행동반응으로 설명된다. 문화적 목표란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지표로서의 심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하며, 제도적 수단이란 문화적 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어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방법을 말한다. 제도적 수단의 적합성 여부는 구성원들의 아노미의 압력에 못 견디어 일탈하는 정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수단이 적합한 경우는 구성원의 일탈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정당한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구성원의 일탈 확률이 커지게 된다. 다섯 유형 중 특히 상반된 대표적 적응양식인 동조와 혁신의 경우를 살펴보면 동조는 문화적 목표가 수용되고 동시에 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정당한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이며 혁신은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나 반면에 수단이 적당치 못하여 거부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철리의 수용과 관련된 상황에서의 문화적 목표는 '고려왕조의 자존'이며 제도화되고 정당한 수단은 고려의 자존을 위한 '원에 대한 저항 행위'라고 할 때 동조적 행위로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로는 몽고에 대한 민중의 봉기, 삼별초의 난 또는 현실적 제약때문에 저항정신이 내면적으로 심화되어 나타난 우리민족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자각<sup>11)</sup> 및 「천추금경록(千秋金鏡錄)」 같은 사서 편찬 등의 사례를 지적할 수 있다. 또 호복의 수용에 대한 일부의 반발도 포함된다. 반면에 혁신적 행위로 설명될 수 있는 예는 바로 철리의 수용이며 그 외 원과 타협하고 협조하는 행위들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표면상으로는 패배자의 현실타협이기도 하며 왕실 및 지배층의 배신이기도 하다. 이를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이면에는 개인과 고려왕조의 존속을 위한 목적지향적인 동기가 포함되어 있음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호복 즉 철리의 수용을 단순히 수치스러운 행위나 출세를 위한 비열한 행위로, 즉 부정적 차원의 수용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고려의 정치적 약세로 말미암은 위기의 정세 속에서 개인과 국가자존을 위해 취할 수 있었던 '외교적 수단', 즉 긍정적 차원의 수용으로 재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원종은 호복 개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개혁에 제동을 걸었고 그 결과 세자같은 급진파와의 사

이에 갈등이 존재하였으나 원종의 승하 후 세자 심(충렬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친원적 개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새로운 문화의 수용여부에 있어서 갈등의 정도는 지도자가 추종자들을 설득하는 능력에 따라 달라지며, 중앙집권적 상태와 내적 분열이 적은 상태에서 설득력이 크기 때문에<sup>12)</sup> 왕위에 오른 충렬왕은 쉽게 개혁을 실현시켜서 갈등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개혁이 원의 강제에 의한 것인지 충렬왕 자신의 뜻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즉위년 12월에 재추회의(宰樞會議)에서 개체 변발이 정식으로 논의된 이후 송송례(宋松禮, ) 정자여(鄭子輿)등이 개체변발을 시작하자 다른 조신들이 이를 좇았다고 하며<sup>13)</sup> 동왕 4년에는 국내에 영을 내리어 모두 몽고의 복식과 몽고식 개체를 하도록 하였으니 재상으로부터 하료(下僚)에 이르기까지 이를 따랐다고 한다<sup>14)</sup>. 어쨌든 모든 백성이 이를 따른 것은 아니었지만 관료층과 출세하고자 하는 지배층 사이에서는 널리 수용되었을 것이다. 더우기 개체호복 뿐만이 아니라 몽고어의 장려, 보급 내지는 몽고풍의 이름까지도 일부 친원파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귀족계층에서 자진하여 호복을 착용한 행위는 Simmel이 패션의 주요 동기로 지적한 '계층간의 경쟁심이나 모방심리'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sup>15)</sup>. 따라서 철릭의 수용은 국가적 차원 및 개인적 차원의 자존과 지위상승에 대한 욕구의 표현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혁신자들에 의해 새로운 외래문화가 소개되면 그것이 수용되기까지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게 된다. Rogers<sup>16)</sup>는 혁신이 수용되기까지에는 ① 수용에 의한 상대적 이익 ② 기존가치와의 양립 가능성 ③ 수용과정의 복잡성 ④ 혁신 시도 가능성 ⑤ 혁신 전달 가능성 등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다른 문화권의 복식문화를 수용할 때도 Rogers의 요인과 동일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sup>17)</sup>.

외래문화 요소가 아노미 상태를 극복하게 되면 기존문화 속에 수용되어 새로운 질서를 찾게 된다. 이를 문화의 '통합'이라 한다. 특히 말리노우스키는 이 과정을 '전혀 새로운 특수경향의 재조직 과정'<sup>18)</sup>이라 하여 단순한 타문화의 무조건적 수용이 아니라 재창조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 또 Herskovits<sup>19)</sup>는 이를 '재해석(reinterpretation)의 과정'이라고 지적하였다.

복식문화가 전파, 수용되는 경우도 그 복식이 지니는 형태나 사회적 의미 혹은 상징적 의미 등이 반드시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맞도록 변형되고 수렴된다. 더우기 물질적 차원에서의 공유는 쉬울지라도 정신적 차원까지의 공유는 일반적으로 더 어렵다. 철릭 역시 몽고에서는 용복 겸 일상복적인 성격을 띄었던 것이지만 고려사회에 전파될 때는 이미 그 의미가 변하여 출세나 정치적 야심을 위한 상징적 복식이 되면서 철릭의 착용과 지위획득이라는 교환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

Beattie<sup>20)</sup>는 이에 덧붙여 외래문화가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재구성되는 경향 이외에도 선형제도 자체를 개혁하거나 그러한 제도들 사이의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물질적 요인과 관념적인 요인이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물질적 요인이 문화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그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Veblen<sup>21)</sup>은 특히 테크놀로지가 사회질서를 지니고 있어 인간의 주인이 되고 있다고 그 심각성을 지적해 바 있다. 테크놀로지가 사회변동의 결정적인 요인이냐 하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테크놀로가 사회변동을 유발시킨다는 사실에는 이의가 없다. 구체적인 변동현상을 살펴보면 첫째,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선택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둘째,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상호작용의 유형들을 변경시킨다. 셋째로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렇듯 물질적인 요인이 사회변동에 끼친 영향은 지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이 수용된 복식문화역시, 정도의 차이 있지만 기존 복식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철릭의 수용에 의해 변화된 것에는 어떠한 것을 지적할 수 있는가. 첫째, 선택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복식문화의 다양화에 기여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고려도경」<sup>22)</sup>에 의하면 고려시대의 포제(袍制)로 중국제인 관복류와 심의 및 고유의 백저포 등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철릭의 수용은 포제의 질적 향상 뿐 아니라 양적인 증진을 가져왔음은 확실하다. 둘째, 자진해서 원의 복식을 수용해 준 것은 원의 자존심을 살려준 것이므로 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보다 원만하고 수월하게 해주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자존에 큰 효과를 거

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새롭게 철릭의 수용과정에서 철릭을 착용하고자 하는 수용파와 수용반대파의 급적 마찰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으며 또 그자로 파생된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위의 변화도 예할 수 있다. 따라서 철릭의 수용은 우리 복식문화 내용을 풍부하게 했다는 점 및 국가자존에 기여한 등의 긍정적 의미와 그 이외에 수용과정에서 야기된 갈등의 발생 및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적 부작용 등 부정적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도 지적할 수 있다.

### III. 유행현상으로서의 철릭 분석

상장에서는 철릭이 몽고의 복식으로 어떻게 우리 복식 속에 전파되어 수용되었는지, 그 경위와 그 과정에 각 혁신자의 역할과 사회적 위치, 또 수용과정에서 야기한 사회적 문제점 및 기여도 등에 대해 살펴 보았다. 한편 전래된 문화는 다시 그 사회의 독특한 조건과 문자체의 내재적 조건으로 인하여 변화를 피할 수 없는 문화를 포함한 사회의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은 순환과 진화론으로 대별할 수 있다. 특히 순환론을 주장한 르가들 중 문명을 생물학적 유기체에 비유한 engler는 문명이란 모두 숙명적인 인과의 철칙에 따른 하중동의 결과와 같은 생애 주기를 거쳐 소멸하게 되고 지적한 바 있으며<sup>23)</sup> Sorokin은 문화의 모든 측이 관념적이거나 이상주의적 또는 감각적인 것으로 특이할 수 있는 세계의 초체계(supersystems)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문화적 역사는 세계의 초체계들 간의 주기 진동에 의해 순환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24)</sup>. 순화과정을 유기체적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스펡글러의 이론은 복식이 생성, 성장, 소멸하는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주기에 소로킨이 지적한 초체계의 각임을 적용시킬 수도 있다. 소천안랑(小川安郎)<sup>25)</sup> 역내적, 외적 조건에 의해 시간과 함께 변화하는 복식 생태학적 변화양상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개체적 복식의 생태학적 양상은 시간적 추이에 따른 사회적 수용 및 거부와 관련된 일종의 사회적 규범성, 즉 유행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복식과 관련된 유행이란 '일정한 기간동안에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받아들여지는 복식의 양식과 그 현상'을 의미한다. 유행주기의 특성에서는 앞서 지적한 스펡글러나 소

로킨의 변동이론과 유사한 양상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발생과 성장, 소멸이라는 주기를 지닌 유기체적 특성과 둘째,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그와 유사한 형태로 다시 역사상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순환성을 지적할 수 있다.

또 많은 학자들은 유행을 발생시키는 요인들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Horn<sup>26)</sup>은 유행의 변화를 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 ① 개방적인 사회구조 ② 경제적 여유 ③ 여가시간의 증가 ④ 스포츠 붐 ⑤ 교유기회의 증대 ⑥ 문화적 접촉 ⑦ 젊은 층 세력의 확대 ⑧ 사회적 동요 ⑨ 여성의 지위향상 ⑩ 의도적인 개혁 등을 열거하고 있고, 변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① 정체된 사회구조 ② 정부의 제재 및 금령 ③ 관습 ④ 지리적 격리 ⑤ 변화를 두려워 하는 심리 ⑥ 사회주의 같은 정치체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 Troxell과 Stone<sup>27)</sup>은 유행을 발생시키는 사회경제적 요인 이외에 ① 지루함 ② 호기심 ③ 전통에 대한 반발 ④ 자기만족 ⑤ 소속감 등의 심리적 요인을 포함시켰다.

열거한 요인 중 몇개의 요인들은 전통사회보다는 현대 사회에서의 유행에, 보다 더 적절하게 적용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개개의 유행마다 각기 다른 요인들이 작용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철릭의 생태학적 차원의 분석과 더불어 사회적 수용과 거부에 관련된, 유행현상으로서의 발전단계를 형성시킨 요인들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유행의 주기는 수용과정의 시간적 변수와 수용인 변수에 따라 몇단계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간단히 도입기와 대중수용기, 쇠퇴기의 세단계로 구분하여 살펴 보겠다. 이러한 세단계를 하나의 유행과정으로 파악할 때 철릭의 경우 2회의 유행과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유행의 순환적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제 1차 유행과정은 고려중기 원에 복속된 원종 때의 도입에서부터 공민왕대의 중흥정치에 의해 명의 제도를 도입하여 원의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를 말하며 제 2차 유행과정이란 조선조에 들어와 세종대에 중국으로부터의 사여 이후 조선조 말 철릭이 소멸될 때까지를 의미한다.

#### 1. 제 1차 유행과정

제 1차 유행과정의 분석에 앞서 철릭의 시원(始源)을 살펴보자. 철릭은 몽고의 여러 벽적포 중의 하나로서, 그 벽적포류의 발생은 몽고족의 기마생활에 의해 자연 발생될 수 밖에 없었음을 즐고(1988)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시원은 정치적 관계로 말미암은 문화적 접촉에 의해서 발생한 문화의 이동, 즉 외래문화의 전파로 설명할 수 있다.

제 1차 유행과정의 도입기는 충렬왕의 즉위 이후 친원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적 차원인 법령에 의해 다소 강제적 성격을 띠고 형성되었다. 그러한 전개과정상의 특징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추진력과 빠른 속도로 우리 고유의 복식체계 속에 흡수될 수 있었다. 거부 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시대적 흐름을 재빨리 인식한 이들에게는 사회적 지위의 상승이나 출세의 한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보급의 양상은 가속화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는 다수의 수용자를 포함하는 대중수용기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00여년이 지나는 동안 몽고의 복식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될 정도로 우리복식 구조 속에서 당당한 한 부분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원제국의 세력이 쇠퇴해지면서 고려는 서서히 원의 기반에 벗어 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바로 31대 공민왕의 개혁적인 중흥정치가 그것이다. 공민왕은 전일의 권신집정시대 이래의 잔재인 정방을 없애고 개체변발의 몽고풍을 고치며 원의 연호를 폐지하는 등 배원향명(背元向明)의 새로운 움직임 속에서 자주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또 32대 우왕(禑王)대에는 명조에 왕의 편복과 군신의 조복을 청한 바 있고 또 호복을 개혁하여 명제에 따르게 하는 등의 사실로 보아 원에 복속한 이후 호습(胡習)으로 변화된 풍습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조 초기에 완성된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철릭이라는 용어는 보이지 않는다. 단지 ‘용복’이라는 기록만이 보이는데 용복의 의미에는 ‘군여(軍旅)의 의복’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 이외에 용족이라는 종족의 복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려사」의 세자가 부마가 되어 용복으로 오랫동안 집무했다는 기록이나 왕이 입성(入城)할 때 용복을 입으면 백성들이 해피하게 여길 것이라는 기록 등으로 미루어 보아 용복은 곧 호복인 동시에 원의 복식임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 수용된 호복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지만 상당히 다양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중에서도 철릭이 대표적인 복식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조선조 초기의 용복은 고려 후기의 용복 개념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철릭은 고려 말기 이후 조선조 초기까지

계속 착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철릭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면서 용도면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착용자의 수나 착용기회가 한정되면서 철릭의 세력은 갑자기 쇠퇴하여 갔다. 즉 고려 중기 이후 왕의 집무복으로부터 관리들의 평상복, 연거복 및 일반 민서의 평상복 등으로까지 다양한 사회적 지위와 용도로 착용되어 지던 것이 조선조 초기에는 서인, 대장, 대부, 외방의 일수양반(日守兩班), 공상천예(工商踐隸), 별감, 악공 등의 복식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고 따라서 그 착용이 한정되었던 것이다.

이러듯이 고려중기 이후에 진행되었던 제 1차 유행 과정은 고려 중후기의 역사적 자료 빈곤으로 상세한 과정은 파악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몇가지의 특징은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철릭은 정치적 관계에서 비롯된 문화전파의 한 양상으로 우리 고유의 복식문화 체계 속에 도입, 전개되었다. 둘째, 현대의 유행의 주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1세기라는 긴 주기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주기의 단계별 변화 과정의 주기형태가 완만한 증형(鍾型)이 아니라 도입기와 쇠퇴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즉 갑작스런 성장과 쇠퇴를 보이는 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셋째, 이러한 현상은 앞서 지적한 유행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에서 문화적 접촉과 또 그 접촉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동요 그리고 의도적인 국가차원의 확대와 억제 변수 등에 관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전통사회였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욱 컸음은 사실이지만 유행주기의 성장과 쇠퇴에 의도적인 개혁으로의 법령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제 2차 유행과정

제 2차 유행과정은 고려 말 이후 용복으로 명맥을 유지해 오던 철릭에 새로운 힘이 부여되면서 시작되었다. 도입기에 해당하는 시기는 조선조 초기의 태조대부터 명종대에 이르는 시기로 보이는데 특히 그 과정은 세종대에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김정자<sup>28)</sup>는 세종대 이후 상류계층에서는 물론 평민까지 철릭을 착용하게 된 원인을 첫째, 착수의 의의와 넓은치마가 붙어 있어서 그 형태가 활동하기에 편리하다는 의복구성상의 요인과 둘째, 문(文)을 숭상하는 사회적 풍조가 사대부의 심의(深衣) 대신, 그 형태적으로 유사한 철릭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심리적 요인, 셋째, 철릭의 형태가 넉넉하고,

직물의 종류로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엔 손색 없다고 하는 미적 요인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발단은 명의 조정에서 세종 26년(1443)에 면복(冕服)과 함께 내렸던 상복(常服)의 반으로 답호와 함께 철릭을 사여한 것에서 비롯되고 생각한다. 포목3습(袍服三襲)에는 곤룡포와, 철릭을 1습으로 하는 춘추용, 하절용, 동절용 3계절 상복(常服)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중점은 면복과 조복의 하사는 이미 고려 공민왕대 몇 사례 행해진 바 있었으나 상복의 하사는 처분해졌다는 점이다. 고려조와 조선조에서는 몽고 3습을 없앤다는 의도에서 철릭의 용도를 융복만 제한하고 있었으나 그 하사를 통해 직접 중국의 상복(常服)을 접할 수 있었고 아직까지도 중국 조정 상복(常服)의 반침옷으로 철릭을 사용하고 있다는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명 황제가 과 유사한 벽적포류(壁績袍類)를 의외로 착용하고 있는 모습은 5대 선종(1425~35년), 9대 현종 4~68년)의 도상(圖像)<sup>30)</sup>등에서 찾아 볼 수 있는 2 시기는 조선에 철릭을 사여한 시기와도 일치한 그 후 세종대 이후 연산군대 까지 중국사신과 백가동(家童)들에게 내린 하사물 중 철릭이 20여건으로 갑자기 증가함을 볼 수 있다.<sup>31)</sup> 이에는 유행 3대에 권위있는 인물이나 집단의 채택이 큰 자극 된다는 모방심리의 일반적 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 즉 철릭을 중국 황제가 하사했다는 사실 중국조정에서 여전히 황제를 위시한 고위관직의 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조선조정으로 하여 일반 사대부에게 하사토록 하였고 결과적으로 철릭 세력을 다시 확장하게 하는데 주요 요인으로 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철릭이 빈번히 조정의 사여물로 등장하면서 의 권위와 더불어 착용자의 수도 자연히 확대되었 따라서 철릭은 사회적 지위면에서 다시 상승적 변 경험하게 되었고 사회적 기능은 융복 위주의 기서 왕을 위시한 대소 백관의 상복의 중의, 사대 1복, 하급직 및 서민들의 통상복, 군복의 중의, 등의 기능으로 다시 분화되어 다양해진 것이다. 주목되는 점은 상복의 중의(中衣) 기능과 사대 1복의 표의 기능으로의 발전이다. 이러한 발전에 김찬주<sup>32)</sup>는 신분에 따른 제한이 엄격했던 조선조

의 의생활에서 특이한 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예종실록(惠宗實錄)」<sup>33)</sup>의 평상시 융복의 외착(外着)을 금한다는 기록이나 연산군대 김경조(金敬組)가 내관(內官)과 의원(醫員)을 기다릴 때 철릭을 입고 기다렸다고 하여 문초하도록 하였다는 기록,<sup>34)</sup> 또 중종대에 편전(便殿)에서 경연관(經筵官)을 접대할 때 편복차림이라 해도, 심의는 괜찮으나 철릭 같은 옷은 착용할 수 없다고<sup>35)</sup> 지적한 점, 또 명종대에 조정의 제도를 재정비하면서 철릭을 무부(武夫)의 복장으로 제한 한 점<sup>36)</sup> 등으로 미루어 보아 조정의 의도가 어느 정도로 강력하였는지는 알 수 없을 지라도 철릭의 사회적 지위를 낮추려는 의도가 분명 내포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비록 철릭의 사여 증가가 사대부의 외착을 조장한 것은 사실이나 적어도 조선조 초기에는 사대부의 외착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급직 및 민서의 통상복의 표의로는 철릭을 착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sup>37)</sup> 왕을 비롯한 사대부의 경우에는 상복의 반침옷이나 융복의 표의로는 착용할 수 있어도 편복의 표의로는 허용하지 않았음을 말한다. 따라서 이제까지 사대부가 편복의 표의로 철릭을 아무런 부작용없이 당연하게 착용했던 것으로 여겨 왔던 일반적인 견해와는 상이한 것으로, 앞서 철릭 착용에 계급차가 없었다고 지적한 점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있다. 즉 통상복의 표의로 착용할 수 있는 계급과 착용할 수 없는 계급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했던 것이다. 일부 조선조 후기의 여러 문헌에서 철릭의 기능 중에 사대부의 표의 기능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억제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했던 실제적인 유행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이 시기의 철릭의 의료(衣料)와 색상,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면에서 있어 당상관이 사, 라, 능, 단을 사용할 수 있었고 계급에 따라 승수(升數)의 차이가 있었다. 색상은 중종조 이후 홍색을 숭상하는 풍조가 있긴 해도<sup>38)</sup> 주로 청색계통이 사용되었다. 또 형태적 특징은 「악학궤범」의 도해(圖解)나 출토유물 등에서 확인되듯이 첫째, 칼깃의 직령으로 여밈이 깊다. 둘째, 소매의 폭은 좁아 통수형의 착수이고 길이는 길다 셋째, 상의의 하의의 비율은 거의 1:1로 후기의 形態와 상당히 다르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고려 말의 것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

은 모습일 것이며 다른 의복에 비해 마상의(馬上衣)로 적합할 뿐 아니라 용복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활동적인 복장의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고 하겠다.

두번째 단계인 철릭의 대중수용기 즉 전성기는 선조(宣祖)대에서 인조(仁祖)대에 해당된다. 선조 7년<sup>39)</sup>에 이미, 박봉으로도 구비하기 쉽다는 점, 또 운남(雲南) 등지에서도 중국의 제도를 본받고 있으므로 우리도 본받아야 마땅하다는 점 등을 들어 다른 제도와 함께 철릭류를 널리 입도록 하자는 건의가 나온다. 임진난(선조 25년)이 일어나자 철릭은 다시 용복의 기능으로 응축되어 국가 비상시의 계엄복으로 입혀지게 되었으나 이미 사대부의 편복으로서의 외척이 상당히 자리잡은 후이므로 실제적으로는 전과 별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 단지 조정에서 입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입던 것을 이제는 오리려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임진난이 발발된 후 왕명으로 상하 백관이 철릭으로 정사에 임하기 시작하였다.<sup>40)</sup> 철릭이 이처럼 공복화된 연유는 역시 용복의 기능성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선조 29년 이후에는 수차례에 걸쳐 관복의 부활론<sup>41)</sup>이 대두되었는데 그 이유는 오래된 전쟁기간 동안 용복을 입은지라 상하의 구별이 어렵게 되었다는 점과 전쟁이 끝나고 점차 정세가 안정되고 있다는 점, 또 중조에서 비웃는다는 점 등이었다. 중국에서는 이미 철릭 및 벽적포류가 하인배의 옷으로 착용되고 있었기 때문에<sup>42)</sup> 철릭을 입고 달리는 조선조 백관의 모습이 중국 군인들의 조롱감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의관을 새로 갖추자는 자도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아직 용복을 벗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여기는 자들도 있었다. 동왕 32년에 백관의 관대복구(冠帶復舊)가 실행되는 것 같으나 그 후에도 용복차림에 대한 기록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잘 시행되지 않은 모양이다. 이는 국난시의 철릭이 정신무장의 상징이었으므로 전쟁이 끝난 직후에도 여전히 경제심을 풀지 않겠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sup>43)</sup>

정유난이 일어난 인조 4년 이후에 다시 백관의 용복 착용이 시행되어 병자난이 끝난 동왕 25년까지 공복으로 착용되었다가 그 후 비로소 관대가 부활되었다. 그리하여 상하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착용되었던 철릭은 사회가 안정되는 중후기에 이르러서는 점차 착용

범위가 다시 한정되고 용도에 변화가 오게 되었다.

따라서 철릭의 대중수용기는 임진난과 정유난, 병자난이 있었던 선조, 인조대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착용자의 심리적 욕구에 의한 수용이라기보다는 전쟁과 같은 사회, 정치적 요인에 의한 수용이었다. 복식의 수용에 있어 개인적 요인만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기간동안의 철릭의 형태는 인조대 1620년대를 고비로 큰 변화를 맞게 된다. 문 기록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소매이다. 선조 26년, 30년 등 수차례에 걸쳐 용복의 착수가 내려지나 그 후에도 광활의 정도는 심화되어 인조 26년에도 재차 착수령이 내려진다. 이를 통볼 때 전시 중에도 철릭의 소매가 넓었음을 알 있는데 소매의 넓이는 복식의 다른 부위와도 상관관계가 크기 때문에 철릭의 전체적 형태가 조선조 초기의 것과는 많이 달라졌다. 외형의 확대화를 초래하고 상하의 비율은 1:2 정도로 변화했다. 따라서 능성 면에서 자연히 저하되었다. 전시의 복장에서 능성이 저하된다는 것은 치명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는 그럴만한 연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전쟁이 간헐적으로 장기화됨에 따라 전쟁의 심각성 둔화된 상태였고 철릭만으로 계급을 나타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철릭의 의복형태에 계급표식을 한 과시적 소비심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철릭은 인조대를 고비로 점차 세력이 약되어 갔다. 그 근본적인 요인으로는 첫째, 앞서 지냈듯이 양난을 거치는 동안 철릭이 공복으로 착용면서 계급구분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다. 둘째, 중조에서의 벽적포 지위가 하락함에 따라 중조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 점차 기피하는 현상이 타난 것이다. 세종대에 철릭이 갑자기 부음을 이룬 역시 중국의 역할이 컸음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철릭의 쇠퇴에도 중국의 영향이 직접, 간접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후 계속적인 철의 쇠퇴를 유도한 중요한 요인은 경제학자 Nystrom 지적했던 유행의 심리적 동기 중 '지루함에 대한 반발'라는 요소를 들 수 있겠다. 즉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긴 전쟁동안 입혀졌던 철릭이 싫증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하루 빨리 벗어버리고 새로운 환경으로 전환해보려는 욕구가 발생한 것이다. 전쟁의 종식과 더불어



은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더우기 전후 융복의 필요성이 감소한데다가 대신 군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철릭은 전통고수의 의미만이 크 되었다. 영조 2년<sup>44)</sup>에는 무관이 관포(冠袍) 안에 창(裳衣)을 입지 않도록 하라는 하교가 있었는데 효종대도 이미 그와 비슷한 하교가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 양난 이후부터 철릭이 문관에게는 물론이고 무관에게 지도 천대받는 실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정 16년까지도 수차에 걸쳐 무인의 직령 착용을 금하도 하였다. 동왕 17년에는 이미 철릭이 동가복 이외에 달리 용도가 없으므로 무관의 평상복, 도신(道臣)이 가를 시찰할 때만 착용도록, 범위를 축소시키자고<sup>45)</sup> 정도가 되었다. 따라서 말기에는 무관들의 평상복 및 급직의 통예복으로 착용되다가 고종대에 서양식 군복 리 교체되면서 자취를 감추어 그 이후에는 무당복 등 특수복에서만 찾아 볼 수 있을 뿐이다.

이 쇠퇴기에서의 철릭의 사회적 지위는, 철릭의 주된 무관에게까지 대우받지 못할 정도로 하락하 나. 그러면서도 형태의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정 17년 진신(摺紳)의 공복소매가 넓어지니까 조예들 철릭 소매까지 넓어져 옷감의 낭비가 많으니 줄이 는 하교가 있었고<sup>46)</sup> 순조 34년에는 융복의 소매가 까지 끌리는 상황에 달했다고 한다.<sup>47)</sup> 즉 하층민 소매자락이 그럴 정도이니 사대부의 것은 짐작하 남음이 있다. 상의와 하의의 비율도 초기에 1:1 ! 것이 1:3으로 까지 변하여 기능성과는 관계가 리례적인 자태가 되었다. 소매 역시 초기의 직배 착수가 의례적이고 여유있는 두리소매로 바뀌었 중기 전시 때의 소매가 넓었다고 해도 쇠퇴기의 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전쟁의 종식과 권위주 사회풍조, 철릭의 사회적 지위의 쇠락과 융복 기 감소 등의 요인이 그것을 보상하기라도 하듯이 의 확대와 장식화를 유도한 것이라 하겠다. 에서 살펴본 제 2차 유행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 첫째, 유행의 주기는 1차 유행과정에 비해 상 완만한 편이다. 둘째, 도입의 발단은 중국의 사 서 비롯된 조선 조정의 모방심리에 의해 성립되 이는 직접적으로 사신이나 백관들의 사여물예 의 양을 급증케 했으며 이러한 연유로 철릭을 사 의 편복 표의로 허용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 힘에 의해 사대부의 편복으로서의 기능이 성

립되었다. 셋째, 대중수용기는 일반적인 유행심리에 의해 성립된 것은 아니지만 전쟁이라는 사회정치적 요인 에 의해 성립되었다. 이 기간에는 철릭이 융복으로의 본래의 기능으로 되돌아가게 됨에 따라 기능적 외형 이 요구되었지만 계급표식의 과시적 소비심리에 의해 점차 외형적 확대, 사치를 가져오게 하였다. 넷째, 철 릭의 쇠퇴 원인으로는 계급표식 기능의 저하, 중국에 서 벽적포의 지위가 저하됨에 따라 야기된 중국인들의 비웃음, 장기간의 착용으로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하는 사회심리적 요인, 군복 착용의 확대 등을 지적 할 수 있다. 다섯째, 철릭의 형태적 변화는 융복으로 의 기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즉 융복 기능이 중시된 기간에는 합리적 외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컸던 반면 융복 기능의 상실은 과장된 의복의 외형을 유도했다고 할 수 있다.

#### IV. 결 론

철릭의 전과과정과 수용과정을 문화변동이라는 사회 학적 입장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 다.

철릭이 우리 고유 복식체계에 자리하게 된 것은 고려 중기 이후 원과의 정치적 관계 속에서 행해진 문화의 전 파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래된 철릭의 수 용은 몇가지 점에서 사회문화적 변화를 야기시켰다. 첫 째, 철릭의 수용은 포제에 질적, 양적인 향상을 가져 왔 다. 둘째, 원의 복식을 수용함으로써 원과의 정치적인 관계를 원만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자존에 기여했 다. 셋째, 철릭의 수용과정에서 수용과와 수용반대파의 이념적 마찰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켰으며 또 그 여파로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위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외래문화로서의 철릭의 수용은 우리 복식문화의 내용을 풍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자존에 기여했다 는 긍정적 효과와 수용과정에서 야기된 갈등의 발생과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적 부작용 등의 부정적 효과로 해 석될 수 있다.

우리 문화 속에 포함된 철릭은 다시 변동을 겪게 되었는데 그 과정은 두개의 유행의 주기로 구분되었다. 제 1 차 유행과정은 고려중기 이후 충렬왕이 법령으로 호복을 착용하게 함으로서 시작된 후 고려말 공민왕 이후 배원 항명의 새로운 움직임 속에서 철릭을 융복으로 제한하기 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그 유행과정 중의 특징은 첫째,

현대의 유행의 주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1세기라는 긴 주기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주기의 단계별 변화 과정의 주기 도입기와 쇠퇴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즉 갑작스런 성장과 쇠퇴를 보이는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둘째, 유행주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외래 문화와의 접촉 및 의도적인 개혁으로의 법령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제 2 차 유행과정은 조선조 세종대에서 시작되어 조선조 말기까지 유지되었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지적될 수 있다. 둘째, 유행의 주기는 1차 유행과정에 비해 상당히 길고 완만한 편이다. 둘째, 유행의 발단은 중국의 사여에서 비롯되었고 조선 조정의 모방심리에 의해 백관들의 사여물에 철릭의 양이 급증되었고, 그리하여 철릭을 사대부의 편복으로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대부의 편복 기능이 성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행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대중수용기는 전쟁이라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 성립되었다. 네째, 철릭의 쇠퇴에는 계급표식 기능의 상실, 중국인들의 비웃음,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심리, 군복 착용의 확대 등의 요인이 작용했다. 다섯째, 철릭의 외형적 변화는 용복 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용복의 기능이 중시된 기간에는 기능적인 외형이 유지되었으나 용복의 기능이 저하되면서는 외형의 확대를 가져왔다.

### 각주 및 인용문헌

- 1) 이 복식에 대한 명칭은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최고(最高)의 명칭으로 여겨지는 '탈릭'에서 음운변동이 비교적 적다고 생각되는 '철릭'으로 통일하여 지칭하고자 한다.
- 2) Davis, Kingsley, *Human Society*, New York: Macmillan, 622(1949)
- 3) Vogt, E.Z., "Culture Chang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Vol. 3, New York: Macmillan, 555(1968)
- 4) Wissler, C., *Man and Culture*, New York: Thomas Y. Crowell, 128-9(1923)
- 5) 줄고, "철릭의 명칭에 관한 연구", *韓國衣類學會誌*, Vol. 12, No. 3, 363-371(1988)
- 6) 崔仁鶴, 文化人類學, 서울: 새문사, 178(1986)
- 7) 李光奎, 文化人類學의 世界, 서울: 서울大學校 出版部, 213(1985)
- 8) 高麗史, 卷 第二十五, 元宗世家
- 9) 高麗史, 卷 第二十七, 元宗世家
- 10) Merton, R.K.,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Free Press, 185-248(1968)
- 11) 李佑成, 姜萬吉 編, 韓國의 歷史認識(上), 서울: 1작과 批評社, 210(1985)
- 12) Coser, L.A.,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 London: Free Press of Glencoe, 128-133(1956)
- 13) 高麗史, 卷 第二十八, 忠烈壬世家
- 14) 高麗史, 志 卷 第二十六, 輿服
- 15) Blumer, H.G., "Fashio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Vol. 5, New York: Macmillan, 342(1968)
- 16) Rogers, E.M & R.J. Burdige, *Social Change in Rural Society*, New York: Appelton Century-Crafts, 3-375(1972)
- 17) Kaiser, S.B.,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nd Personal Adornment*, New York: Macmillan, 4-447(1985)
- 18) 존 비티, 社會人類學, 崔在錫 譯, 서울: 一志社, 315(1985)
- 19) Herskovits, M.J., *Cultural Anthropology*, New York: Knopf, 492(1955)
- 20) 존 비티, 전개서, 314(1986)
- 21) Veblen, T., *The Theories of Business Enterpris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306-323(1904)
- 22) 高麗圖經, 서울: 亞細亞文化社, 영인본(1981)
- 23) Hodges, H.M., *Conflict and Consensus*, New York: Harper and Row, 422(1974)
- 24) Sorokin, P.A., *The Crisis of Our Age*, New York: P. Dutton & Co., 17(1941)
- 25) 小川安郎, 服飾變遷의 原則, 東京: 文化出版局, -4(昭和56年)
- 26) Horn, M.J. & L.M. Gurel,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 111(1981)
- 27) Troxell, M.D. & E. Stone, *Fashion Merchandising*, New York: McGraw-Hill Co., 30-32(1981)
- 28) 김정자, "帖裏考", *服飾學會誌*, 제 8 호, 59-60(1985)
- 29) 世宗實錄, 二十六年 三月 "常服... (中略) ...袍服三各三件, 苧絲大紅織金袞龍暗骨朵雲袍, 青暗花袴黑綠暗花貼裏. 紗大紅織金袞龍暗骨朵雲袍, 青暗花袴, 靑哥綠花貼裏, 羅大紅織金袞龍袍, 靑素袴裏, 靑素貼裏.  
\*1443년은 명의 6대 영종조에 해당됨.
- 30) 1.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香港: 商務印書館, 423(1981)  
2. 故宮圖像選萃, 國立故宮博物院 編, 43(中華民國 81年)
- 31) 孫敬子, 金英淑 共編著, 韓國服飾史資料選集 I, 참조, 敎文社(1982)

慶珠, “칠릭에 관한服飾史의 研究”, 서울大學校大  
完 碩士學位論文, 11-12(1980)

宗實錄, 元年 七月, “常時及戎服外着笠禁”

山君日記, 十年 九月, “傳曰 聞金敬祖有病 遣內官  
員問之 敬祖着帖裏待之 其鞠之”

宗實錄, 十四年 七月, “上日便殿則用便服 何如…  
略)…光祖日…(中略)…若用深衣等服 則可也 如帖  
等服 不可也”

宗實錄, 八年十月, “乃命朝廷…(中略)…武夫則毛  
帖裏”

宗實錄, 三十三年 正月, 卷百二十三, “各典各宮別  
小親侍及典樂暑樂工 常時則通着直領袂注音帖裏”

宗實錄, 二十三年 八月, 卷十七, “今則 戎服之類爭  
深紅甚爲不可”

祖修正實錄, 七年十一月

40) 宣祖修正實錄, 二十五年, “命百官戎服不定服色黑笠  
貼裏衣廣絲帶佩劍”

41) 宣祖實錄, 二十九年三月

42) 宣祖實錄, 三十二年正月, 卷之二十三, “今者天兵滿城  
看見本國官員着貼裏行走 指爲皂隸所服 仍加侮笑”

43) 仁祖實錄, 二年四月, 卷之五, “自今上下戎服 雖出於  
母忘在宮意”

44) 「英祖實錄」二年十月 “近來則不然 冠袍之內 皆着髦衣  
飭申飭可也…(中略)…孝廟曾以此申飭”

45) 正祖實錄, 十七年十月, “戎與軍 其意同也 而強爲區別  
異其制異名之曰 戎服者 甚沒意義”

46) 正祖實錄, 十七年十月, “近來搢紳之公服袖袂漸廣 殊  
非古制至皂隸帖裏之袖 亦隨而廣 畿至帛 濫費可悶”

47) 純祖實錄, 三十年四月, “而若其衣袖之舊僅回肘者 今  
畿濶垂曳步矣”